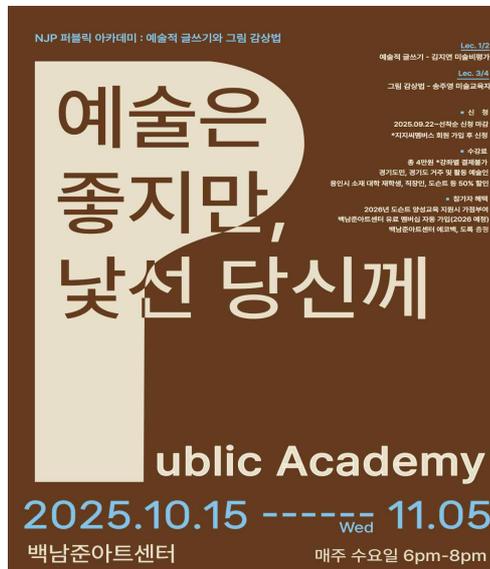


보도자료

제목	백남준아트센터 퍼블릭 아카데미 개설	
문의	사업: 기획운영팀 한승연 t.031-201-8533 취재: 학예연구팀 김지수 t.031-201-8542 m.010-6750-0450	
자료	이메일에 첨부된 자료 다운로드	
배포	2025년 9월 18일(목) 이후 쪽수	총 5매

백남준아트센터, NJP 퍼블릭 아카데미 개설 - '예술적 글쓰기', '미술 감상법' 등 성인 대상 강좌 4주 운영



- ▶ 백남준아트센터, 'NJP+ 퍼블릭 아카데미' 첫 개설
 - 예술적 글쓰기와 그림 감상법, 4회 운영
- ▶ 예술애호가를 위한 평일 저녁, 예술 치유의 시간
 - 지역 문화예술교육기관으로 역할 확대
- ▶ 건강한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 지역 직장인, 학생, 예술인 등 수강료 반값 할인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관장 박남희)가 오는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성인 대상 프로그램 'NJP+ 퍼블릭 아카데미: 예술적 글쓰기와 그림 감상법'을 운영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예술은 좋지만 다소 낯설게 느껴졌던 성인들에게, 작품과 친밀하게 소통하고 자기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실습과 강의를 접목된 과정이다.

과거에 비해 미술관의 전시와 교육 등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난 요즘, 개인 SNS에 자신의 예술적 취향을 드러내는 일 역시 많아졌다. 예술적인 경험을 나만의 글과 감정으로 표현하는 일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기억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아트센터는 이 점에 주목해 보다 선명하고 단단한 표현과 감상을 위한 새로운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비평지와 일간지, 대중매체를 넘나들며 미술과 문화에 관한 다양한 글을 기고하는 미술비평가 김지연의 '예술적 글쓰기' 워크숍(10월 15일, 22일)으로 시작된다. ▲나만의 시선과 언어 만들기 ▲선명한 글쓰기 등 2주에 걸쳐 자기만의 시선을 담은 글 한 편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워크숍은 현재 백남준아트센터의 전시 《백남준의 도시: 태양에 녹아드는 바다》를 관람한 뒤, 핵심 단어 5가지를 수집해 오는 것으로 시작하여 전시 리뷰 작성, 합평, 분석, 퇴고 등으로 이어진다.

대중에게 한국일보 미술 칼럼 '맛있게 그림 보기'로 이름을 알린 미술교육자 송주영은 유명한 작품도 나에게 의미가 없다면 텅 빈 감상에 그친다고 말한다. 한 장의 그림이 한 사람의 바꿀 수도 있다고 믿는 그는 개인 취향 존중의 시대의 ▲맛있게 그림 보는 방법(10.29)과 인공지능이 압도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예술가와 디자이너의 의미까지 다시 생각해 보는 ▲예술가 vs 디자이너: 1919년 vs 2025년 감상법(11.05)으로 안내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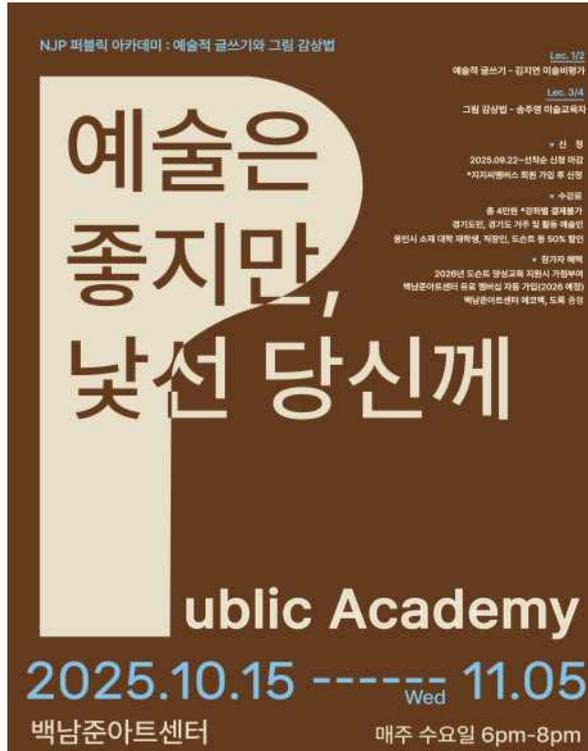
백남준아트센터는 문화 향유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거주 성인에 대한 지원으로 평일 저녁 시간 강의 운영과 함께 경기도민, 용인시 소재 직장 재직자, 대학 재학생, 용인시 거주 및 활동 예술 종사자의 수강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더불어 2026년 백남준아트센터 도슨트 양성교육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건강한 지역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여러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아카데미 신청은 백남준아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9월 18일(목)부터 선착순(정원 40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강생에게는 ▲2026년 백남준아트센터 도슨트 양성교육 지원 시 가점 부여 ▲백남준아트센터 유료 멤버십 자동 가입(2026년 예정) ▲수강료 할인 ▲백남준아트센터 에코백, 도록 등 기념품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백남준아트센터는 이번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공공미술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지역 미술관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백남준아트센터 관계자는 "이번 퍼블릭 아카데미는 시민이 예술을 보다 깊고 풍요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첫 성인 대상 정규 프로그램"이라며, "예술을 낯설게 느끼던 이들도 쉽고 즐겁게 작품에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백남준아트센터 홈페이지 www.njp.ggcf.kr ☎ 031-201-8533

■ 관련 이미지: 온라인 포스터



■ 백남준아트센터, NJP 퍼블릭 아카데미 개요

명칭	NJP 퍼블릭 아카데미: 예술이 좋지만 낯선 당신께
기간	2025년 10월 15일(수) ~ 11월 05일(수) 매주 수요일 저녁 6시~8시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2층 세미나실
프로그램	- 10월 15일(수)~10월 22일(수): 예술적 글쓰기(강사 김지연 미술비평가) - 10월 29일(수)~11월 05일(수): 미술 감상법(강사 송주영 미술교육자)
인원	성인 40명
신청방법	백남준아트센터 홈페이지(교육 메뉴) / 9.22일부터 선착순 신청
수강료	총 4만원(4강좌) / 강좌별 분할 결제 불가
할인	경기도민, 경기도 거주 및 활동 예술인, 용인시 소재 대학 재학생, 직장인, 도슨트 등 50% 할인(2만원)
참가혜택	2026년 백남준아트센터 도슨트 양성교육 지원시, 가점 부여, 백남준아트센터 유료 멤버십 자동 가입(2026년 예정), 백남준아트센터 에코백, 도록 등 기념품 증정 및 강의별 다과 제공 등
문의	백남준아트센터 031-201-8533 / www.njp.ggcf.kr

■ njp+ 퍼블릭 아카데미 '예술은 좋지만, 낯선 당신께' 프로그램 안내

1. 예술적 글쓰기

강좌	예술적 글쓰기
일시	2025. 10. 15.(수) ~ 10. 22.(수) (총 2일) 18:00~20:00
장소	백남준 아트센터 2층 세미나실
강사	김지연 미술비평가
대상	성인(지역민, 문화예술인(종사자, 전공자 등), 미술애호가 등) 40명
강의 목표	좋은 글에는 글쓴이의 시선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다시 말해,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만의 시선을 준비해야 한다. 한 사람의 시선에는 그가 살아온 모든 순간의 경험과 기억이 작용한다. 글에 담긴 목소리는 문장을 다듬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는지에서 비롯된다. 그 목소리가 선명할 때, 글은 혼자만의 감상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언어가 된다. 이 워크숍은 미술을 자기 언어로 표현해야 하는 문화예술인, 또렷한 목소리가 담긴 글쓰기를 원하는 미술 애호가 등을 위한 것이다. 2주에 걸쳐 자기만의 시선을 담은 글 한 편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전 과제	전시 <백남준의 도시: 태양에 녹아드는 바다>를 감상한 뒤 핵심 단어 5개 수집해오기. (※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단어 위주로 수집하기, 추상적 개념어·학술용어는 지양)
내용	<p>1강(10/15) 나만의 시선과 언어 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만의 시선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의미를 발견하는 방법 - 미술 글쓰기와 일반 글쓰기의 차이, 구조적 글쓰기의 특수성 - 감상 단어 공유를 통한 시선의 다양성 확인 및 글쓰기 재료 찾기 <p>■ 과제: 전시 리뷰 1편 (A4 1쪽 이내) 작성 (10/20(월) 오후 6시까지 제출)</p> <p>2강(10/22) 선명한 글쓰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작 중 6~8편을 선정해 심층 합평 - 좋은 글의 장점과 흔히 놓치기 쉬운 약점 분석 - 퇴고를 통한 글 완성도 높이는 방법 - Q&A
	현대미술과 도시문화를 비평하고 시각문화 콘텐츠를 기획한다. 현재 계간 문화예술비평지 <크리티크 M>의 편집위원,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미술무크지 <그래비티 이펙트>, 컬처아카이브 <픽>, 격월간 <맨 노블레스>의 필진이다. 대학과 기관, 문화 공간 등에서 글쓰기와 현대미술 강의를 한다. 쓴 책으로 『등을 쓰다듬는 사람』(224), 『반짝이는 어떤 것』(2022), 『보통의 감상』(2020), 『마리나의 눈』(2020)이 있다.

2. 미술 감상법

강좌	미술감상법
일시	2025. 10. 29.(수) ~ 11. 05.(수) (총 2일) 18:00~20:00
장소	백남준 아트센터 2층 세미나실
강사	송주영 미술교육자
대상	성인(지역민, 문화예술인(종사자, 전공자 등), 미술애호가 등) 40명
강의 소개	아무리 유명한 예술 작품도 나에게 의미가 없다면 텅 빈 감상에 그칩니다. 한 장의 그림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미술과 디자인 사이를 오가며 허기진 빈속을 달래 줄 맛있는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인 취향 존중의 시대, 더욱 어려워진 미술 이야기를 쉽고 맛있게 차려 놓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압도하는 불확실성의 시대, 예술가와 디자이너의 의미도 생각합니다. 『그림을 맛있게 먹는 7가지 방법』(인물과사상, 2025)의 저자, 미술교육 칼럼니스트 송주영이 요리합니다.
내용	<p>1강(10/29) 개취 존중 시대의 그림 감상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토리텔링 그림 감상법 - 형식과 내용 그림 감상법 - 무제 감상법 - 개인 취향의 비밀 <p>2강(11/05) 예술가 vs 디자이너: 1919년 vs 2025년 감상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르셀 뒤샹 - 바우하우스 - 미술대학이란 무엇인가 - 21세기의 창작자들
	예술학과를 졸업 후, 중국과 미국에서 미술교육학 석사를 마쳤다. 번역가,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면서 '맛그림 미술교육'을 운영했다. 한국화학공학회 [NICE], 한국일보에 '맛있게 그림보기' 칼럼을 연재했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독서IN에 칼럼을 연재 중. 한국의 예술가와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미술교육을 연구하고 있다. 『그림을 맛있게 먹는 7가지 방법』(2025) 등